

韓國經濟發展의 比較史的 理解

趙 璣 溶*

<目 次>

- I. 머릿말
- II. 近代的 産業社會로 移行하는 段階의 評價
- III. 開化期の 近代化過程
- IV. 植民地 支配下의 民族資本
- V. 解放後 韓國經濟의 發展에 대한 評價
- VI. 맺는말

I. 머 릿 말

1. 第二次大戰後 過去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였던 여러 民族國家들은 政治的 獨立을 達成하면서 經濟的 自立을 目的하고 工業化를 추진시켜왔다. 이러한 國家들은 開發途上國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韓國도 그런 國家 中の 하나이다.

이러한 開發途上國들 중 工業化作業을 어느 程度 成功시킨 나라도 있고 失敗한 나라도 있다. 工業化作業을 成功시킨 나라들은 最近「新生工業國」이라는 名譽로운 稱號를 받고 있다. 韓國도 多幸히 이 新生工業國家群의 隊列에 들어 서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新生工業國家들은 오늘날 共通된 苦悶을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이들 新生工業國家들이 經濟成長을 持續시키면서 隣境에는 先進工業國의 隊列에까지 到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世界經濟社會의 周邊에 머물러 있으면서 先進工業國을 追從만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新生工業國家들이 經濟는 成長시키고 있으면서도 國民으로부터는 何 全幅의인 共感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點이다.

* 高麗大學校 經濟學科

이러한 問題의 解決은 開發途上國의 工業化過程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開發途上國이나 新生工業國의 工業化過程에서는 過去 그들이 겪어온 歷史的 遺産에서 키울 것은 키우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工業化를 進行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先行作業을 斷行하지 못하고 工業化를 서두르고 있다는 데에 問題가 있다.

第二次大戰後 工業化를 추진시키고 있는 開發途上國家들은 거의 모두가 過去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 支配를 받았던 나라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工業化에서 先行되어야 할 問題는 封建的 殘滓와 植民地的 遺産을 清算하는 일이다. 이러한 清算되어야 할 歷史的 遺産은 開發途上國의 工業化過程에서 國民經濟建設을 歪曲시키는 要因이 된다. 그것은 經濟의 各部門에서 否의 作用을 할 뿐만 아니라 國民의 經濟意識에도 影響을 미친다. 執政政黨이나 官府의 政策理念, 企業人의 企業倫理와 行態, 國民大衆의 價值意識에도 作用한다.

이와 같은 封建的 殘滓와 植民地的 遺産을 清算하지 못한 基盤 위에서는 新生工業國은 先進工業國의 水準을 追越할 수도 없고 또 20世紀에서 21世紀에 바라볼 수 있는 資本主義의 「理想型」에도 接近할 수 없는 것이다.

韓國經濟가 直面한 問題 中에는 따지고 보면 이러한 封建的 殘滓와 植民地的 遺産의 否의 機能의 結果도 많다고 하겠다.

韓國經濟에 대한 이러한 認識에서 이 論文이 構成되고 있는 것이다.

2. 第二次大戰後 韓國의 工業化過程에서 露呈되고 있는 封建的 殘滓 및 植民地的 遺産은 韓國의 近代의 產業社會가 形成되는 오랜 歷史過程에서 累積되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論文은 韓國의 傳統的 農業社會에서 近代의 產業社會로 移行하는 時點에서부터 現代에 이르는 긴 歷史過程을 研究對象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歷史過程을 크게 네 時期로 나누어 考察하기로 한다.

그 첫번째의 時期는 開港以前の 時期로서 大體로는 18世紀에서 19世紀에 이르는 約 100年間이 研究의 對象이 된다. 이 時期에 대한 經驗에서는 韓國傳統社會內部에서 西歐의 影響을 받기 이전에 나타난 社會經濟的 變化를 西歐의 近代移行期の 變化와 比較해 본다면 轉換期の 韓國經濟社會의 世界史的 位置는 어떤 段階에 있었다고 하겠는가?

두번째의 時期는 開化期에 該當되며 1876年の 開港에서 合邦에 이르는 35年間이 된다. 開港後 韓國은 日本과 淸國을 通하여 西歐文化에 接하게 되는데 이러한 環境의 變化에 대해 執政層과 商工人 그리고 農民은 어떻게 이에 對應해 왔던가? 南京條約 以後 西歐勢力에 依해 받은 政治的 壓力과 洋務派의 近代化作業 또 日本이

開港하는 經路와 比較해 보면서 韓國開化期의 思想과 開化作業의 限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세 번째의 時期는 植民地 支配下의 35年間이다. 日本의 對韓植民地政策을 日本資本主義의 發展段階와 照明해 보면서 이에 對應하는 民族資本의 存在樣相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植民地의 支配에서 무엇을 遺産으로 넘겨 받았는가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네 번째는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는 37年間이다. 이 시기에 韓國은 植民地支配에서 벗어나 政治的 獨立을 達成했고 經濟的 自立을 爲한 工業化를 進行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新生工業國으로 登場한 韓國의 經濟는 國民經濟建設의 視角에서 어떠한 評價를 받을 것인가, 解放後 韓國의 工業化過程에서는 過去의 封建的 殘滓와 植民地의 遺産을 清算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努力이 있었고 또 어느 程度 清算되었는가, 이러한 遺産이 現代 韓國經濟 發展에서는 어떠한 否의 機能을 하고 있는가 등이 考察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한 문제는 이번 發表에서 詳細히 考察할 여유는 없고 다만 몇 가지 點만 들면서 問題를 提起하는 데 그치게 될 것이다.

II. 近代의 產業社會로 移行하는 段階의 評價

開港以前에 韓國社會의 內部에서 近代로의 발돋움이 있었다는 것이 究明된 것은 第二次大戰後 韓國史研究의 業績이었다. 開港前의 自國 傳統社會의 內部에서 自生的으로 近代의 產業社會로의 轉換의 徵候가 있었다는 데 대한 研究는 中國이나 日本에서도 1930年代以後 始作되었다. 解放後 韓國史研究도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된다.

韓國傳統社會의 內部에서 일어난 變化의 評價에 대해서는 아직 定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一部 學者들은 이 變化의 段階를 近代產業社會로의 起點으로 보는가 하면, 萌芽의 段階에 지나지 않는다고 評價하는 學者도 많다. 이 問題는 우선 西歐社會에서 나타난 移行期의 徵候와 比較함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들을 例로 들면서 韓國中世後期의 轉換期의 性格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農業社會의 變化를 가늠할 수 있는 經營農의 出現을 보자.

朝鮮時代의 傳統의 生産業은 農業이었고 이 農業은 大地主制(政府, 貴族, 官僚, 그出身의 兩班巨族)下에서의 零細小作經營을 主軸으로 하였다. 耕作農民도 土地와

더불어 地主의 隸農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耕作關係에서 經營農이 成長한다는 것은 朝鮮後期の 큰 變化라고 하겠다. 韓國의 경우에는 壬辰・丙子兩亂以後 이런 現象이 특히 나타난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새로운 經營樣式에서 누가 主役이 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西歐에서는 이 경우에 耕作農民이 領主의 土地를 借地하면서 貸與地部分을 擴大하여 그 經營의 擔當者가 되었으나 (領主의 自營部分은 縮小된다) 韓國의 경우에는 地主가 沒落한 農民을 募民하여 年貢雇農을 삼고 自身이 經營主가 된다. 韓國에서도 農民이 地主의 農地를 借地하여 並作半收의 條件으로 經營의 擔當者로 登場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西歐와 같이 一般的인 經營形態로 擴大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舊地主가 經營의 擔當者로 登場하는 農業經營樣式 속에서는 農民의 財貨蓄積의 機會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西歐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民의 中產層으로의 上昇은 期待되지 못한 것이다. 西歐에서는 16,7世紀에 農產物 市場이 形成되고 地代의 金納化가 一般化함으로써 農地에서의 中產層이 폭넓게 形成되어 갔다.

다음 商工業의 發達과 市民階層의 形成을 보기로 한다.

朝鮮時代의 傳統的 商工業秩序는 官商・官匠制를 原則으로 하고 있었다. 私商・私匠은 극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許容되었을 뿐이다.

이 官商・官匠制의 原則이 動搖되고 私商・私匠이 發達하며 盛行하는 것은 大同法實行以後부터였다. 그리하여 17世紀・18世紀에 들어오면 地方의 鄉市가 發達하며 都市 및 地方行政都邑은 都市의 樣相을 갖게 된다.

商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貨幣經濟도 이때부터 뿌리를 내리게 된다.

商工業의 發達로 商工人, 특히 商人 中에서 富를 蓄積하여 새로운 財產家層이 出現한다.

이러한 現象은 傳統的 農業社會에서는 큰 變化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變化에는 限界가 있었다.

우리는 朝鮮後期の 商工業部門에서 나타난 變化를 16・7世紀 西歐社會의 그것과 比較해 보면 그 限界性を 理解할 수 있다.

朝鮮後期 社會에서 나타난 流通部門에서 需要의 가장 큰 部分을 차지하는 것은 官府需要였고 民間으로부터의 需要는 그다지 크지 못했다. 韓國의 都市는 行政官府의 所在地이거나 官府物資의 集積地에서 發生하고 있었음은 이러한 事情을 말해 준다. 여기에 대해 16・7世紀의 西歐社會에서는 領主의 城下都市도 있었으나 그에 못

지않게 商工業의 中心地에서 商業都市가 發生하였던 것인데 이것은 民間需要가 큰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데 緣由한다. 특히 16·7世紀의 西歐에서는 海外貿易이 活潑하게 展開되었고 따라서 貿易都市가 크게 發達했다. 韓國에서는 對淸對日貿易이 이 시기에 오히려 縮小되어 있었다.

朝鮮後期の 商工業者들도 富를 蓄積하고 社會로부터 羨望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으나 그들은 西歐社會 특히 西歐都市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的 勢力을 形成하지 못했다. 韓國의 商工業者들은 封建的 秩序에 安住하고 있었고 그들은 兩班의 身分을 買得하려 했고 商工人으로서의 地位上昇을 企圖하지는 못했다.

肅宗以來 貨幣經濟가 뿌리를 내렸어도 그 發展에는 限界가 있었다. 英祖・正祖年間に 政府에 대한 租稅의 一部가 金納으로 許容되었으나 그것은 山間郡縣과 같은 特定地域에 限定되어 있었고 또 地主에 대한 小作地代는 100% 現物만으로 許容되었다. 地代金納制는 西歐에서는 13世紀頃부터 이미 대두되었고 16·7世紀에 이르러 農民이 支拂하는 거의 모든 地代는 金納이었고 또 固定地代였다.

英祖・正祖年間に 盛行한 實學者들의 實用主義는 新生商工業者를 代辯하고 있었으나 16世紀以來의 西歐重商主義와 같이 새 時代를 풍미한 時代思潮로까지는 成長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朝鮮後期 社會에서 나타났던 近代社會의 첫 발돋움은 封建的 秩序를 溫存한 채 開港을 맞게 된 것이다.

III. 開化期の 近代化過程

開港이 되어 西歐資本主義文化에 接하기 以前の 東洋三國, 즉 淸國・日本・韓國은 封建的 支配體制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었으나 近代의 社會經濟로의 移行이라는 視角에서 보면 基本的으로는 同一한 性格의 發展關係에 있었다(異說도 있다).

다만 西歐勢力에 依한 開港의 時期가 달랐고 또 近代化의 試圖가 서로 달랐다. 이제 이 東洋三國의 近代化作業의 經過를 比較해 보자.

中國은 1842年の 南京條約으로 開港했고 1860年代에 洋務派에 依해 近代化作業이 始作된다. 이 洋務派는 封建的 支配階層에서 나왔고 傳統的 封建支配體制를 떠맡으면서 西歐文化를 受容코자 했다. 「中體西用」은 그들의 改革思想의 核心이 되고 있었다.

日本은 1854년에 美日修好條約으로 開港되었고 1868년에 明治政府가 執權하면서 近代化作業이 始作되었다. 明治政府의 執權擔當者도 勿論 舊封建支配層의 出身이었

으나 中國과는 달리 그들은 舊幕府政權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執權勢力을 構築했다. 그런 點에서 明治政府의 執權은 革命的 性格을 가졌다고 하겠다. 明治政府의 改革理念도 「和魂洋才」라 하여 中體西用思想과 다를 바는 없었다.

韓國은 1876년에 日本에 依해 開港되고 80年代初 西歐諸國과 通商하면서 開化作業은 始作된다. 이 시기에 守舊派와 開化派가 兩立되어 있었으나 開化派의 政治革命企圖는 失敗하고 守舊派에 依해 開化作業이 이루어진다. 守舊派의 政治執權者가 封建貴族出身으로 構成되어 있었고 그들의 革新政策의 理念도 「東道西器」를 내세웠고 封建的 秩序를 維持하면서 西歐技術을 받아 들이고자 한 것이다.

西歐諸國에 依한 開港의 過程에서 東洋三國이 當한 外勢의 壓力은 그 強度나 侵略의 樣相에서 큰 差異를 보였다.

中國은 그 방대한 領土와 資源과 市場이 西歐列強에 대한 큰 魅力이 되고 있어 처음부터 領土侵略의 對象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阿片戰爭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侵略戰을 겪게 되었다. 다만 中國이 어느 한 나라의 植民地가 되지 않은 것은 侵略勢力의 相互牽制가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開港當時나 그 以後에 있어서도 西歐諸國으로부터 領土侵略의 對象이 되지 않았고 侵略戰爭도 겪지 않았다. 日本이 中國大陸과 같은 經濟的 魅力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點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19世紀 後半期 특히 1860年の 西歐資本主義의 發展段階와도 關聯이 있었다. 즉 1860年代는 歐美諸國이 産業資本主義의 段階에서 獨占資本主義의 段階로 옮겨지는 過渡의 時期였으므로 國內에서의 政治的 및 經濟的 抵抗이 深化되어 體制再編이 要求되었기 때문에 對外侵略의 餘裕를 맞지 못했다. 英國은 歐洲大陸의 여러나라의 追越에 直面하여 産業의 再編이 必要했고 美國은 이 時期에 西漸運動으로 國內問題의 解決을 企圖하고 있었다. 日本의 開港以後의 近代化作業에서 成功을 거둘 수 있었던 要因의 하나로서의 外壓弛緩說은 日本學界에서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韓國은 西歐勢力에 依해 開港한 것이 아니라 封建的 勢力으로 構成된 日本軍國主義에 依해 開港되었다. 日本은 開港後에도 繼續的으로 政治的 攻勢를 取하면서 領土侵略을 企圖했다. 1884年の 甲申政變에서는 開化派를 조종했고 1894년에는 東學農民蜂起를 軍隊派遣으로 鎮壓했으며 甲午更張內閣에 親日勢力을 參與시켜 改革을 主導케 했고 乙巳條約과 더불어 日本人을 直接 韓國政府에 參加시켜 領土占奪을 本格화했다.

1880年代初부터 始作되는 韓國政府의 開化作業도 中國의 洋務派나 日本明治政府가 내세운 富國強兵・殖産興業政策을 當面目標로 삼았다.

政府는 1883년부터 政府部署에 博文局, 鑛務局, 造紙局, 織造局 등을 두고 그傘下에 西歐技術을 導入하여 近代의 工場을 政府直屬으로 建設을 企圖하나 財政難과 內政干涉, 國內 政治情勢의 不安 등으로 크게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한편 商人들은 開港場의 外商에 對抗하기 爲해 資本을 募集하여 會社를 設立하고 또 商人會議所를 結成하는 등 西歐의 商業組織을 導入한다. 그러나 資本蓄積이 미약하여 外商과의 競爭을 이겨나가기 어려웠다. 開港場에는 이미 多數의 日人이 大資本을 갖고 進出해 있었고 日本國立第一銀行은 1878년에 釜山에 進出하여 80年代에는 韓國主要都市에 出張所를 두고 있었고 日本商船會社는 開港直後부터 韓國에 進出하여 韓國의 對外貿易路와 沿岸運送까지 席卷하고 있었다.

國王의 俄館播遷後 政府에 의한 日本의 內政干涉이 退潮되는 1890年代末에 民族資本의 近代企業會社設立이 比較的 活潑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이러한 企業들은 官僚資本과 商人資本의 合作으로 이루어지나 露日戰爭後 日本勢力의 再侵略으로 民族會社는 거의 모두가 沒落하고 만다. 特히 乙巳條約後 日本統監府의 政治的 支配와 1905年の 貨幣改革의 斷行과 더불어 日本第一銀行에 依한 韓國金融界의 支配體制가 確立되면서 民族資本은 沒落하고 韓國의 內在的 發展의 길은 最終的으로 斷切된 것이다. (韓國의 內在的 發展의 길이 斷切되는 時期를 淸日戰爭에서 日本이 勝利한 時期로 보는 見解도 있다.)

IV. 殖民地 支配下的 民族資本

日帝支配下 韓半島의 社會經濟는 몇차례의 變身을 겪었다. 그것은 日本資本主義의 發展段階에 따라 殖民地政策이 바뀌어졌고 民族資本이 이에 對應하면서 自生的 發展을 試圖한 데서 온 現象이었다.

그 첫번째의 時期는 1910年代이다. 이 時期에 日本은 第一次大戰을 契機로 飛躍的인 發達을 이룩한 때였다. 當時 日本은 韓民族의 單純勞動力을 利用하여 日本工業의 原料와 食糧을 確保하는 데에 主眼을 두었다. 이 時期에 韓國國內의 市場은 關心밖에 있었다. 大戰中 交戰國의 海外市場이 空白으로 日本商品에 開放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合邦後 韓民族의 抵抗勢力을 抹殺하기 위해 暴力的인 武斷統治를 斷行했고 韓半島內에서의 近代工業의 發達을 牽制하면서 工業原料를 確保하기 위해 朝鮮會社令을 公布했고 日本工業化를 爲한 食糧을 效率的으로 確保코자 土地調査令을 發布했다. 1912년부터 實施된 土地調査事業은 이 時期 日本의 朝鮮統治에 많은 意

味를 갖는 作業이었다. 즉 日本은 朝鮮統治에서 土着民으로부터의 支持者를 貴族兩班등 舊地主層에서 얻고자 그들에게 土地의 排他的인 所有權을 認定했고 地主와 農民과의 封建的 隸屬關係를 維持시키고자 封建的 小作關係 및 現物小作料制度를 強化했다. 日本은 또 이 調查事業을 通하여 國有地 및 國有林을 朝鮮總督府 所有로 옮기어 統治財源을 確保했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는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進出した 資本은 農林會社, 水產會社, 鑛山開發會社, 鑛石處理를 위한 製鍊會社 및 棉花會社 등을 設立했고 그밖에 日本內工業과 競爭되는 近代工業은 抑制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民族資本에 依한 近代工業建設을 볼 수 없었다.

1910年代의 朝鮮社會는 植民地的 半封建的 性格을 가장 농후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의 時期는 1920年代이다. 日本은 第一次世界大戰後 不況에 突入했고 海外貿易은 漸減하여 國內工業은 戰時景氣를 타고 肥大해졌던 施設의 稼動率은 40~50%로 떨어졌다. 이러한 不況에서 日本이 눈을 돌린 것은 韓半島였다. 이 시기에 그들은 朝鮮의 資源과 勞動力, 朝鮮勞動者의 技能工으로의 可能性에 關心을 갖게 된 것이다. 1920年 4月 1日을 期해 工業建設抑制의 役割을 하던 朝鮮會社令을 철폐하고 日本內의 遊休資本의 進出을 許容했다. 日本이 朝鮮人民을 單純勞動力에서 技能勞動力으로 轉換을 企圖하면서 所謂 文化政治를 내세우고 朝鮮人에 대한 初等敎育과 實業敎育을 實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社會經濟環境이 變化되면서 民族資本의 近代企業으로의 進出이 다시 始作되었다. 이 시기에 近代企業에 進出した 民族資本은 크게 둘로 分類된다. 그 하나는 米穀의 對日輸出에서 貨幣資本을 蓄積한 大地主 및 巨商들이며 이들은 大體로 農林會社, 水產會社 그밖에 一部는 比較的 規模가 큰 工場工業(染織工業)에 投資했고 다른 하나는 小商人 및 小地主, 傳統的 商工業分野에서 殘命을 維持해온 零細商工業者, 1920年代 近代工業化에서 技能工으로 體驗을 쌓아온 庶民出의 企業人들이며 그들은 中小企業分野에서 活路를 開拓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民族企業은 1920年代에 대두되는 經濟的 民族主義의 後援을 받으면서 展開되었다.

또 한편 韓半島의 工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農民과 勞動者의 意識化도 發展되어 1920年代 中盤부터 反帝反封建運動도 活潑하여진 것이다.

1920年代는 이와 같은 여러 社會經濟 및 文化的 側面에서 보아 植民地下에서의 初期段階의 資本主義의 構成體를 이루고 있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세력의 시기는 1930年代와 45年の 解放에 이르는 15年間이다. 이 時期에 朝鮮民族資本의 隸屬化가 深化된다.

日本은 1931년에 滿洲事變을 일으켜 中國의 東北部地方인 滿洲의 保護領을 確保하고 滿洲國을 建設하여 37년에는 中國本土侵略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第二次世界大戰으로 突入한다.

이 시기는 日本獨占資本의 朝鮮進出이 本格化하여 朝鮮에 重化學工業을 建設하며 이 過程에서 民族資本의 隸屬化가 急進의으로 敢行되었다. 이 隸屬化過程에서 大地主 大商人資本에 依해 建設된 民族企業體는 日本獨占資本에 迎合하면서 存續이 維持되나 群小資本에 의한 中小企業은 企業整理過程에서 沒落하거나 少數는 그 下請部分을 擔當하면서 殘命을 이어나갔다.

이 시기에 日帝는 또 滿洲 및 中國本土進駐軍의 食糧確保를 爲하여 朝鮮農民에 대한 直接收奪을 強化했고 日本軍 防衛力 補強을 目的한 勞動力 動員 및 徵兵制를 實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朝鮮의 社會經濟는 傳統社會로부터 물려받은 封建的 殘滓를 清算하기보다는 強化했고, 植民地의 遺産까지 남기고 韓半島에서 물려선 것이다.

V. 解放後 韓國經濟의 發展에 대한 評價

解放後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의 政變이 있었고 새 政府가 들어설 때마다 새 政策理念을 천명하면서 그 實踐을 約束하여 왔다.

解放된 韓國의 國民經濟建設의 基本理念定立에서 가장 國民의 意思가 잘 反映되었던 것은 建國初期에 闡明되었던 政策理念에서였다고 하겠다. 國民의 意思라고 하는 것은 過去의 歷史過程에서 累積되어온 封建的 殘滓와 植民地支配의 遺産을 清算하고 그 바탕 위에 國民을 爲한 經濟를 建設하자는 것이다.

이 國民의 意思는 憲法에도 反映되었고 大統領의 國會에서의 就任演說에서도 表明되었다. 이 演說에서는 政府의 經濟建設은 國民 各階層을 爲한 것이 될 것이라는 政策의 基本方向이 提示되었고 農家經濟의 自主權을 부여하기 爲해 小作制度를 철폐하고 耕者有田의 原則에 따른 農地改革을 斷行할 것이며 企業活動은 個人的 創意와 經濟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며 勤勞者는 企業利潤에 均霑할 權利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國民經濟建設의 基本方向에 대해서는 一部에서 反對論도 없지는 않았다. 耕者有田의 農地改革에 대해서는 一部 大地主階層에서 反對論을 폈으나 封建的 殘

滓인 小作制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絶對多數의 國民의 輿論에 反論은 꺾이었고 勤勞者의 利潤均霑의 權利에 대해서도 一部 企業人으로부터의 反對論이 있었으나 이를 憲法에 천명한 것은 現代資本主義가 理想型으로 내세운 勤勞者의 權益保障이라는 世界思潮에 呼應한 것이었다.

建國初에는 政府가 서고 그 政府의 政策理念이 나온 것이 아니고 國民이 政策理念을 내걸고 그를 實現시킬 政府를 選擇했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理念과 그 實踐努力은 6·25動亂으로 霧散되었다. 6·25動亂으로 國土가 荒廢化하고 經濟가 混亂에 빠졌으나 政府는 이를 수습할 誠意도 갖지 못했고 努力도 없었다. 國民은 이러한 政策없는 政府를 믿지 않게 되었다.

國民的 地盤을 喪失한 政府는 朋黨을 組織하고 長期執權만을 노리게 되었고 獨裁政權으로 變身하게 되었다.

生産이 마비되고 外援에 依해 겨우 民生이 維持되는 狀況, 戰時財政인프레가 累積되어 貨幣價值가 날마다 추락하는 經濟條件下에서 企業人의 關心은 流通部分에 쏠리어 한관승부의 投機利潤에 集中되고 있었다. 前期의 商人資本의 論理가 經濟를 支配하는 時代가 된 것이다.

解放直後 國民經濟建設의 擔當者가 되어 보겠다면 自負心도, 日帝下에서의 民族企業을 일으켜 보겠다는 民族主義도 찾기 어려웠다.

建全한 國民精神은 農村에서도 사라져 갔다. 美國剩餘農產物의 大量導入으로 農家經濟는 收支를 맞출 수 없게 되면서 農民은 生産意慾을 喪失하고 離農人口가 增加되어 土地改革도 實效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4·19義舉로 새 政權이 들어섰으나 미처 새 政策을 펼쳐 보이지 못하고 軍事革命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軍事政府의 뒤를 이은 共和黨政府가 標榜한 統治의 基本目標은 政治的 安定과 經濟成長이었다. 政治的 安定은 自由民主政治의 制限을 가하면서 이를 達成시키고 經濟成長은 政府主導下의 經濟開發政策으로 實現시키고자 했다. 이 政策은 政權維持의 次元에서 官權으로 밀고 나갔다.

共和黨政府는 實踐力이 강한 軍出身의 軍部엘리트와 現代經濟理論의 教育을 받은 技術官僚로 構成되어 政治와 經濟를 主導하여 나갔다. 또 이 政府는 權威主義政府로서 百姓에 君臨하면서 政治와 經濟를 이끌어 나갔다. 그리하여 1962년부터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樹立 實施해 나갔던 것이다.

이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그 目標한 經濟成長에서는 크게 成功하였다. 第二次大戰後 工業化를 始作한 開發途上國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程度로 韓國經濟

는 急進的 成長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成長은 國民이 바라는 經濟發展이라는 視角에서는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政府는 經濟成長의 手段을 輸出產業의 育成에 두었다. 그리하여 輸出產業을 育成하기 爲해서는 資源의 配分, 稅制, 金融 등 모든 面에서 集中 支援을 해 왔다. 輸出을 爲해 選擇된 產業은 急進的인 發展을 했으나 選擇에서 빠진 產業部門은 相對的으로 萎縮되었다.

政府는 戰略產業을 發展시키면 그 聯關效果가 다른 產業에 미치어 發展이 自然調節될 것을 期待했다. 그러나 그 期待는 的中되지 않았다.

特定產業을 일으킨 企業人은 政府의 優待를 받으면서 막대한 財貨를 獲得했다. 政府는 이러한 蓄積된 財貨는 他產業에 投資되면서 雇員이 增大되고 따라서 그 利潤이 國民에게 公正하게 分配되기를 期待했다. 그러나 이 期待도 的中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政府는 經濟活動의 機會는 特定人에게 特惠로 주면서 利潤의 配分은 經濟論理에 맡겨 두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貧富의 隔差는 이렇게 하여 深化되어 갔다.

共和黨政府가 經濟成長에서는 크게 成功을 거두면서도 國民의 全幅的 支持를 받지 못한 原因은 여기에 있었다. 政府는 이와같이 國民으로부터 支持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公職者 採用에 있어서도 사람의 選擇을 始作했다. 그리하여 選擇된 사람과 疎外된 사람의 階層을 形成하게 된 것이다. 社會不安은 여기서 싹터서 深化되어 갔다. 그 結果로 힘에 의한 社會安定을 目的하는 維新體制가 登場하게 된 것이다.

特惠를 바탕으로한 經濟社會에서는 政府를 큰 政府로 만든다. 더 나아가 權力型 政府로 肥大시켰다. 權力型政府는 官僚의 腐敗를 隨伴하며 官僚와 財閥을 密着시킨다. 이와 같이 腐敗官僚에게 蓄積된 財貨는 生産的 資本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財貨는 海外逃避의 生理를 갖거나 高利貸 또는 投機資本으로 轉化하는 것이다. 오늘날 地下經濟의 막대한 資本은 이러한 腐敗官僚資本으로 構成되었다고 보아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財閥企業의 異常 肥大는 政治優位の 經濟社會에서는 政黨에, 行政優位の 經濟社會에서는 行政官府에 迎合勢力을 擴大시켜 나가는 生理를 갖고 있다. 이러한 勢力의 擴大는 國際資本과 連繫되면서 一國의 行政이 政治의 影響圈을 넘어서는 實例를 우리는 歷史에서 흔히 보아 왔다. 1980年代에 와서 民間主導型的 經濟를 試圖한다는 事實을 우리는 無心히 바라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60年代 以後의 韓國工業化過程에서는 政策技術보다도 政策理念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經濟開發政策은 成長至上主義를 標榜하고 經濟의 效率性에 置重하다보니 經濟의 合理性이 度外視되고 있었다. 이러한 實例는 지난 20餘年間の 經濟政策樹立過程에서 數없이 指摘될 수 있다. 經濟의 效率性이 強調되면서 規模의 經濟를 爲한 財閥企業에 대한 集中的인 保護育成政策, 現在 進行되고 있는 都市再開發政策 및 金融政策 등등은 모두 그러한 政策理念의 倒錯에서 온 發想이었다고 하겠다. 韓國經濟가 持續的인 發展을 이룩하면서 國民의 共感을 얻으려면 새로운 歷史意識에 선 政策理念의 革新이 있어야 하겠다.

VI. 맺 는 말

이상에서 韓國經濟發展의 問題點을 韓國經濟가 發展하여 온 歷史過程을 考察하면서 그 實像을 理解해 보고자 했다.

주어진 題目이 比較史的 考察인데 이 論文에서도 可能的 限 그런 主題에 맞추려고 하였으나 그 點은 充分히 反映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解放後 韓國經濟의 發展에서는 第二次大戰後의 여러 開發途上國과 比較하여야 했으나 紙面도 限度를 넘었고 本人의 調査도 未盡하여 이 論文에서는 그런 側面의 試圖는 하지 못했다.

이 論文은 주어진 問題를 좁은 意味의 經濟學的 側面에서 본 것이 아니라 經濟의 發展을 보다 넓은 意味에서, 政治・文化・社會의 側面에서 보고자 한 立場을 強調하다 보니 經濟學會에서의 發表論文으로서는 限界를 넘어선 感이 있다고 本人도 느낀다. 諒解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本人이 強調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나라의 經濟發展을 評價할 때에는 發展된 結果만 갖고 論할 것이 아니라 그 發展過程도 이에 못지 않게 主要하다는 認識에서 評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Understanding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Comparative History

Ki-Zun Zo*

Summary

After World War II, many countries which had been colonies or semi-colonies achieved their political independence and undertook a course of economic industrialization and self-sufficiency.

Korea is one of those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untries had many common problems such as whether or not these new countries could catch up with industrialized countries. Another problem is that these new countries are not all receiving total support from their people, though they have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We can find the clues to these problems by contemplating the process of their industrialization. These countries should have undertaken economic industrialization by choosing appropriate elements from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They fell into a dilemma due to hasty industrialization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necessary preliminary conditions, that is, removal of feudal and/or colonial legacies. The Korean economy also encountered some problems. Feudal and colonial legacies had negative influences o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the above problems we will divid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to four periods, starting with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until the present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he first period is roughly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century, that is the period before the opening of ports; the second is from opening of ports in 1876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third is the 35 years under Japanese imperial rule; and the fourth is the 37 years after Korean liberation in 1945.

*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In the first period, Korean agricultural society is characterized by a pre-existent landlord-leading management pattern of agriculture, where tenants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acquire wealth. Therefore in contrast to Europe, tenants in Korea could not elevate themselves to the middle class. With advances in commerce and industry,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accumulated their wealth and formed a new wealthy strata.

In the second period, together with the opening of ports, western commercial organization was introduced to Korea. Under this system Korean merchants failed to compete with foreign merchants due to insufficiency of capital accumulation, and internal development was blocked.

In the 1910s, during the third period, Korean society had semi-feudal and colonial traits.

In the 1920s Korea, as a Japanese colony, experienced a capitalistic system in its nascent stage, socio-economically and culturally.

In the 1930s and the first half of the 1940s, the Japanese control of national capital was deepened.

In the fourth period, Korea made efforts to abolish the feudal and colonial legacies and to establish a national economic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but such efforts were in vain because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political and economic chaos persisted. In one way or another, the April 19, 1960 Revolution brought in a fourth new democratic government, but this democratic government was overthrown by the May 16, 1961 Coup d'etat, and a new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is government tri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by means of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Korean economy has achieved rapid growth in the 1960s and 1970s, but many problems became apparent in the process.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ose problems is unequal benefits arising from the economic expansion, that is, the government granted many privileges to some people, but left the distribution mechanism of profits up to economic principles. Thus,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was enlarged. On this account, the government did not obtain total support from the people, though it did achieve rapid economic growth.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the government will try to place emphasis on a private economic system in

the 1980s.

We must remember, therefore, that in the assess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n one country, not only the results of development but also the process of development itself is important.